

# “잘해 봅시다”...금호타이어 노사·채권단·광주시 상견례

### 미래위원회 통해 세부 발전계획 협의키로



28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본관 대회의실에서 정승강 금호타이어 노조 국상지회장, 전대진 생산기술본부장, 조삼수 노조 대표지회장, 더블스타 차이웅 선 회장, 윤장현 광주시장, 조재석 경영기획본부장(왼쪽부터)이 회담 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사와 채권단, 광주시가 해외매각 후 첫 상견례를 갖고 미래위원회를 통한 구체적인 발전계획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금호타이어 노사와 채권단은 28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본관 대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결한 5자 회동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금호타이어 사측에서는 조재석 부사장 등 6명, 노조에서는 조삼수 대표지회장 등 4명, 중국 더블스타에서는 차이웅 선 회장 등 5명, 광주시에서는 윤장현 시장을 포함해 관계공무원 3명, 채권단인 산업은행에서는 금호타이어 TF팀장 등 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금호타이어 정상화와 양사의 동반 성장을 다짐했다. 특히 구체적인 발전방안은 사내에 구성된 노사 공동 미래위원회를 통해 차근차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연차 사용, 정년 연장, 체불 임금 지원 이자, 퇴직금 중도 인출, 공장 휴무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차이웅 선 회장은 5월 중순께 금호타이어 경영진과 노조 대표, 윤장현 시장 등을 중국 청도청다오)로 공식 초청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모임은 노사 대표와 더블스타, 채권단 등이 상견례 차원에서 만난 첫 자리였다”면서 “머리를 맞댄 만큼 구체적인 발전방안도 하나둘 도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50여 협력업체는 앞서 지난 26일 결의대회를 열고 경영정상화 동참을 선언했다. 배영모 협력업체 협의회장은 “금호타이어 조기 정상화가 협력업체 발전으로 연결되고 이를 통해 생존과 존속이 보장된다는 인식 아래 전체 협력업체의 뜻을 모아 금호타이어 조기 경영정상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 이디야커피, 2,500호점 돌파

이디야커피(대표이사 문창기)가 27일 2,500번째 매장인 광주 무등산점을 오픈했다. 문창기 이디야커피 회장이 기쁨추주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고 있다.

## 금융감독원, 작년 은행·대부업 등 금융민원 늘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과 상담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인터넷 뱅킹과 주택담보대출 등 민원과 대부업 및 교통사고 과실비용 관련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금융민원 상담은 총 7만 6357건으로 전년(7만 6237건) 대비 0.2%(120건) 증가했다. 은행 및 비은행 민원은 증가한 반면 보험 및 금융투자 민원은 감소했다. 은행 관련 민원은 8927건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 인터넷뱅킹 등 업무처리와 주택담보대출 취급 과정에서 생긴 민원을 중심으로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여신이 29.8%, 예적금이 14.9%로 절반을 차지했다. 인터넷 폰뱅킹이 6.3%, 신용정보가 4.5% 등이다.

비은행 민원은 1만 6813건으로 전년 대비 7.3% 늘었다. 특히 채권추심부당 관련 민원을 중심으로 대부업 민원 증가세가 눈에 띈다. 지난 2016년 7월 지자체 소관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권이 이관되면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이들 민원 건수는 전년 대비 58.2% 늘었다.

신용카드사 민원 비중이 38.9%로 가장 높았고 대부업자가 17.9%, 신용정보사가 13.3%로 집계됐다. 손해보험 민원도 2만 9641건으로 전년 대비 2.0% 늘었다. 교통사고 과실비용을 묻는 민원과 실손보험의 보험금 파소지급 관련 민원이 증가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46.0%, ‘계약의 성립 및 실효’가 10.3%, ‘보험모집’이 8.2%를 차지했다.

반면 생명보험과 증권관련 민원은 줄었다. 지난해 집계된 생명보험 민원은 1만 8101건으로 전년 대비 7.3% 감소

했다. 2016년 중 발생했던 자살보험금 지급 민원과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 민원 등 주요 이슈 민원이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민원 유형별로는 ‘보험모집’이 39.0%,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18.7%, ‘면부채 결정’이 16.2%에 달했다. 증권 민원도 1990건으로 전년 대비 22.7% 감소했다. 정약후 2일간

### 인터넷뱅킹·주담대 등 민원 0.9%↑

### 채권추심부당 등 대부업민원 늘어

### 지자체 대부업자 감독권 이전 여파

### 손해보험 민원·보험금 산정도 증가

투자결정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파생상품 투자자 숙려제도’가 도입된 뒤 파생상품 부당권유와 펀드상품 설명부적절 민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 민원은 내부통제 전산장애가 26.1%, ‘주식매매’가 19.8%, ‘발행 유통시장 공시’가 4.9%, ‘파생상품 매매’가 4.4%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접수된 금융감독원에 접수

뉴스

## 전남우정청, 찾아가는 재무주치의 교육 진행

### 서민금융진흥원과 공동...지역별 우체국 순회교육



전남지방우정청(청장 정진용)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두달 간 서민금융진흥원(원장 김윤영)과 공동으로 지역별 우체국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재무주치의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재무주치의 교육은 우체국 직원들의 건전한 금융생활을 유도하고 가계재무의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교육은 기관 간 역할분담

을 통한 콜라보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남지방우정청은 ‘금융상품 바로 알기’와 ‘재테크 전략’을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관리의 필요성’과 ‘채무자 구제제도’ 등을 주제로 교육하여 직원들의 재무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재무주치의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소득규모에 맞는 소비와 연령대별 재무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제도가 있다는 사실이 유익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전남지방우정청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재무주치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호 필요한 자원과 정보의 교류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신봉우 기자

### 오늘 Lotto 제 804회차 당첨결과 (2018년 4월 28일 추첨)

1 10 13 26 32 36 + 9

| 순위 | 당첨개수      | 1인당 당첨금액       | 당첨기준                    |
|----|-----------|----------------|-------------------------|
| 1등 | 11        | 1,631,996,523원 |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
| 2등 | 49        | 61,061,095원    |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
| 3등 | 2,048     | 1,460,935원     |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
| 4등 | 100,907   | 50,000원        |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
| 5등 | 1,659,443 | 5,000원         |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

당첨금 지급기간: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휴일인 경우 약정임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